

전남 소프트테니스, 제44회 회장기 다수 입상

전남도청팀·순천시청팀 전국대회서 다수 메달

순천시청 혼복 우승...총 금 1·은 2·동 3개 획득

전남 소프트테니스팀들이 "전국대회"에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남보를 전하였다.

전남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김태성)는 지난 26일부터 2일까지 전북 순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회장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전남도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여자일반부에서 은1개, 동 1개, 순천시청팀이 남자일반부에서 금 1, 은 1, 동 2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계연맹전에서 혼합복식 정상을 차지한 정상희(전남도청)은 최병인(이천시청)과 조를 이뤄 혼합복식에 출전, 우수한 경기력을 펼치며 정상에 도전했으나, 준결승에서 김현수

(담성군청)-염예진(문경시청)조에 아쉽게 5-4로 패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어서 정상희-윤솔희(이상 전남도청)이 일반부 여자복식에 나가 결승전에서 국가대표 고은지와 진수아(이상 육천군청)에 5-1로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순천시청에서도 메달 획득의 기쁨을 맞았다. 순천시청 류태우는 이수진(육천군청)과 조를 이뤄 혼합복식에 출전, 정상희와 최병인을 꺾고 올라온 김현수-염예진을 5:4로 눌러며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류태우는 통산 4번째 혼합복식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해 국제대회서 우승을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켰던 추문수(순천시청)는 남자 단식 결승에 진출 박환(음성군청)에 4:2로 패하며 아쉽게 은메달에 만족했고, 단식에 같이 출전한 이하늘은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순천시청팀은 남자일반부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순천시청에서만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김태성 전남소프트테니스협회장은 "전남을 대표하는 소프트테니스 팀들이 전국대회에서 승전고를 울려 대단히 기쁘다"며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올해도 부상 없이 좋은 경기력으로 전남소프트테니스의 자긍심을 드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이강인 EPL 이적 가시화" 이적시장 전문가 예상 로마노 "EPL 클럽들이 예의주시"

이강인(마요르카)도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황희찬(울버햄튼 원더러스)과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팀에서 뛰 수 있을까. 유럽이적시장 전문가가 EPL 팀들이 이강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적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3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강인이 이번 여름에 마요르카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EPL 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이면 이적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며 "잉글랜드에서 뛰는 것은 이강인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마요르카에도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로마노의 SNS 글은 영국 BBC의 홈페이지에도 함께 실렸다. 로마노는 이적시장 전문가로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실제로 이강인은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끝난 뒤 겨울 시장을 통해 이적을 성사시키려 애썼지만 마요르카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이강인은 올 시즌에 계속 마요르카에 남게 됐다.

하지만 이강인으로서도 이적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년 8월 31일에 자유계약으로 마요르카와 4년 계약을 맺었지만 마요르카가 계속 중위권 팀의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라도 이적이 필요하다. EPL의 상위권 팀까지는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중위권 팀에서는 충분히 제몫을 해줄 수 있다.

마요르카 역시 이강인의 몸값을 생각한다면 이번 여름 이적시장이 적기다.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아직 2년의 계약이 더 남았지만 한 시즌을 더 치르게 되면 시간에 쫓길 수 있다. 자칫 때를 놓치면 자유계약으로 놓아줄 수도 있다. 22세의 젊은 나이를 생각한다면 지금이 이강인을 다른 팀에 넘겨 이적료를 넉넉히 챙길 수 있을 때다.

뉴시스

구례군청 씨름단, '제20회 학산김성률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 국화급·무궁화급 우승



3체급 중 2체급 석권(국화급, 무궁화급)

구례군은 지난 3월 27일 ~ 29일 3일간 창원시에서 열린 '제20회 학산김성률장사배 전국장사씨름대회'에 출전하여 국화급·무궁화급에서 우승하고, 매화급에서는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화급의 엄하진 선수는 결승전에서 등치기와 밀어치기 기술을 통해 안산시청 이재하 선수를 2:1로 제압하며 올해 2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무궁화급의 최희화 선수는 뿌려치기 기술을 통해 선 1점을 획득하고 장기전 체계 관점으로 1점을 내어주어 동점이 되었으나, 막판 끌어치기 기술로 괴산군청 임정수 선수를 모래판에

누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매화급에서 김시우 선수가 3위에 올라 구례군청은 "2023 설날장사씨름대회"에 이어 전체급 순위 내 입상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하며 여자씨름발상지로서 저력을 보여줬다.

김순호 군수는 선수들에게 "훌륭한 성적으로 군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우리 군을 빛내주어 고맙다"라며 "앞으로도 자신의 실력과 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구례의 위상을 드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자씨름의 발상지로서 구례군은 6월 8일 ~ 6월 11일, 4일간 구례 전국여자천하장사씨름대회를 열고, 10월에는 전국체전 종목 중 씨름대회를 개최한다.

구례=박진호 기자

세한대학교 태권도,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서 금 1·은 1·동 1개 획득



겨루기 부문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한 배재홍(오른쪽), 김아연(왼쪽) 선수 (사진=세한대학교 제공)



폼새 부문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이선화(왼쪽 2번째) 선수 (사진=세한대학교 제공)

겨루기 금 1개·동 1개
폼새 부문도 은 1개 획득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 태권도학과가 "제50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활약을 펼쳤다.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는 지난 3월 18일부터 25일까지 경남 통영시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세한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들이 총 3개의 메달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겨루기 부문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배재홍(세한대 2년)은 제57회 대통령기 단

체대항 전국태권도대회 -54kg급 1위,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54kg급 3위를 한바 있는 유망한 선수로서 겨루기 남자대학부 1조에 참가하여 -54kg 최정상을 차지하며 금메달을 획득하며, 다시 한번 실력을 발휘했다.

동메달은 김아연(세한대 3년)이 여자대학부 2조에 참가해 -49kg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폼새 부문에서도 이선화(세한대 3년)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공진 세한대 체육부장은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되는 제31회 하계유니버시아드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프로농구 서울SK 김선형, 정규리그 이어 6라운드 MVP

프로농구 서울 SK 김선형이 6라운드 최우수 선수(MVP)에 선정됐다.

KBL은 3일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6라운드 MVP 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86표 중 71표를 획득하며 SK 자유티를 제치고 6라운드 MVP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선형의 동료 위니는 14표를 받았다.

김선형은 6라운드에서 경기당 평균 35분 18초를 뛰며 19.8득점, 8.4어시스트, 1.6스틸을 기록했다. 김선형의 활약에 힘입은 SK는 6라운드에서 전승했다. 역대 KBL 10번째, 구단 3번째다.

지난 5라운드 MVP에 이어 6라운드 MVP에 선정된 김선형은 기쁨 트로피와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김선형은 자신의 통산 6번째 라운드 MVP 기록을 세웠다.

앞서 올 시즌 프로농구 1~4라운드에서는 전성현(캐롯)이 1, 3라운드 MVP에 선정됐다. 2라운드는 변준형(인삼공사), 4라운드는 이대성(한국가스공사)이 MVP에 뽑혔다.

뉴시스

김인식 "한국야구, 세대교체 미흡...교육방식도 문제" 쓴소리

"김광현, 17년 동안 대표...영건에 대체자 없어"

"WBC 호주전, 투수 운용 아쉬움...전력 투입 必"

역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세 차례 감독을 맡았던 김인식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특별보좌역이 1라운드에서 탈락한 5회 WBC 성적을 두고 세대교체 미흡으로 인한 선수자원 부족과 교육방식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쓴소리를 했다.

김 특보는 3일 MBC라디오 김중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김광현이 현재까지 여기서(국가대표를) 하고 있다. 그 선수들이 대표선수를 한 게 벌써 17년 정도 된다"면서 "이 선수들 나이가 35-36세다. 17년 동안 대표선수를 하는데 왜 이 선수들을 능가하는 선수가 안 나오는가. 다른 젊은 선수가 못 따라오는 것"이라고 질었다.

김 특보는 지도 방식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금 동감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교육)하는 과정, 프로에 와서(교육)하는 과정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며 "왜 17년(이나 된) 그런 선수를 못 따라가느냐"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투수 육성과 관련해서는 "투수가 하체 훈련을 완전히, 완벽히 해야 한다. 투수는 하체가 튼튼해야 잘 던진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달리기를 많이 하고, 가령 계단 뛰기라든가 이런 것을 수없이 해야 한다"면서 "지금 실내에서 하는 러닝머신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다 아는 얘기지 않느냐 하지만, 아는 얘기를 왜 못 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다"며 "프로에서도 거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수들을 엄격하게 교육하지 못하는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특보는 "(교육자가)말도 제대로 못 한다고 한다"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선수에게 특별 영어 하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WBC 호주전을 두고 김 특보는 투수 운용 실패라고 평가했다.

김 특보는 "이번(호주전)은 조금 우리가 자신 있는 조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호주전에만 전력 투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돌아섰다. 이어 "제일 중요한 게 투수 부분이다. 투수 로테이션이라든가, 투수 핸들을 좀 못한 게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여자복식-우승(신승찬_이유림). (사진=대한배드민턴협회 제공)

韓배드민턴, 일본 대회서 여자복식·혼합복식 우승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일본 현지에서 열린 2023 오사카국제챌린지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복식-혼합 복식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복식 신승찬(인천국제공항)-이유림(삼성생명) 조(세계 80위)는 지난 2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대회 여자 복식 결승에서 일본 오타케 미즈키-다카하시 미유 조를 2-0(23-21 21-13)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로써 이유림-신승찬은 지난주 베트남국제챌린지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 이어 2개 국제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혼합복식 결승에서는 한국팀끼리 맞붙었다. 왕찬(김천시청)-신승찬(인천국제공항) 조(세계 505위)가 세계 81위인 김영혁(국군체육부대)-이유림(삼성생명)조를 2-1(21-14 14-21 21-15)로 꺾고 우승했다.